각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大佛, 小佛, 佛塔, 탱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www.yosiamun.com

◇정토회보살들이 비닐봉투대신에 쓰일 투명망을 만들고 있다. 이 투명망은 일반에 배포된다.

2000년 말 우리나라의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4만6천톤. 이중 25%인 1만1천톤이 음식물 쓰레기다. 낭비된 음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원에 달하고 그 처리비용만도 8조원에 이른다. 이것만으로 서울시 1년 예산 11조원의 두 배가 넘는다.

자꾸만 메마른 사막으로 바뀌어 가는 도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연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불교적 가르침에 따른 생태적 삶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쓰레기제로 1080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정토회(대표 유수 스님)는 앞으로 1080일 동안 '장바구니 속 비닐쓰레기제로'와 '음식물쓰레기제로'를 목표로 '쓰레기제로 1080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은 한달 회비 10800원을 내는 회원 1080명으로 '쓰레기제로 1080실천단'을 구성해 일상 생활 속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정토회는 지난 3년 동안 내부 활동가 중심의 '쓰레기제로 운동'을 실천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토회는 쓰레기제로운동을 범시민적인 불교환경운동으로 전개하고자 '쓰레기제로 1080운동'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가 땅속에서 분해되기 위해서는 오백년이 걸린다고 한다.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토회원들이 불자들에게 나누어줄 생리대를 만들고 있다.

발우공양정신 본받아 '쓰레기 제로화' 지향

쓰레기 분리수거

우리 주위에 쓰레기가 넘쳐난다. 쓰레기들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만 해도 충분하다.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의 경우 캔이나 종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 수거실시해 매일 100ℓ봉지 두개씩 발생하던 쓰레기를 절반인 한 봉지로 줄일 수 있었다.

정토회 마산법당 전병인 보살도 분리수거가 쓰레기 줄이기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캔이나 종이, 비닐봉지 같은 것을 따로 버린다고 얼마나 쓰레기가 줄어들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무심코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버리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과연 버려도 될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전 보살은 "버리고 쓰기 전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습관이 쓰레기 발생을 막는 첫 걸음이 된다"고 강조한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서울 정토회관에서는 전통 발우공양 방식에 현대적 식사법을 가미해 아침 저녁 공양을 한다. 개인마다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덜어 먹고, 자기가 가져간 음식은 밥알 한 알까지 물을 부어 마시는 발우공양의 정신을 실천함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양간에서 음식물 조리시 발생한 쓰레기는 말린 후 채소를 키우는 퇴비로 쓸 뿐만 아니라 국물을 내기 위해 쓴 다시마와 무는 따로 모았다가 솜씨를 발휘해 밑반찬을 만들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 체크

쓰레기 발생량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토회는 2000년 4월부터 회관 내 개인쓰레기 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매일 기록했다. 비닐, 화장지 등 종이, 기타 쓰레기로 나누어 누가 얼마만큼 배출하는가를 점검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불필요하게 발생한 쓰레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서울 정토회관 공양주 소임을 맡고 있는 유정길씨는 "자기가 버린 쓰레기가 어떤 것인가를 되살펴보는 것은 필요 없이 사용한 물건은 없는지, 다 사용않고 버린 물건은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함부로 물건을 사용하고 버리는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 가정당 일년 비닐봉투 사용량은 평균 600~800개. 정토회 보살들이 슈퍼에서 야채를 구입하며 비닐봉투 대신 투명망에 담고있다

일회용품 안 쓰기

일회용품 안 쓰기 역시 중요하다. 길을 가다가 마시게 되는 자판기 커피의 일회용 종이컵, 집에서 편하다고 먹는 커피믹스의 비닐봉투, 차 한잔 마실 때마다 나오는 티백…. 이런 것들은 한번 사용 후 그대로 쓰레기가 된다. 일회용품 안 쓰기는 우리 일상생활의 습관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에 익숙한 생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불교환경교육원 최기진 간사는 "일회용품 사용 중단은 결국 세상의 편리함을 버리고 어려움을 택하는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환경 살림을 통해 자기 수행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비닐 봉투 안쓰기

시장이나 백화점, 마트에 갈 때마다 하나 둘씩 받는 비닐봉투를 모으면 그 양은 엄청나다. 한해 비닐봉투를 만드는 비용은 총 120여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비닐 쓰레기 없애기를 위해서는 장바구니 이용은 필수. 정토회원들은 비닐봉투가 필요한 야채나 고기 등을 실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환천으로 된 투명망을 이용하라고 권한다.

"비닐봉투 안 쓰기 운동을 하며 비닐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았다"는 조옥분 보살(정토회 대구법당)은 "포장지며 비닐봉투를 쓰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몇 분이면 될 장보기에 몇 시간을 허비한 적도 있다"고 비닐봉투 안 쓰기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이제는 슈퍼에서 물건을 포장할 때 쓰는 비닐봉투를 대신할, 환천으로 된 투명망을 늘 들고 다닌다. 조 보살은 투명망을 몇 개씩 들고 다니며 쇼핑을 할 뿐 아니라 다른 도반이 투명망을 잊고 오면 빌려주기까지 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집 주변 과일집과 부식가게 주인들도 일부러 포장이 안된 제품을 주문해, 비닐봉투 안 쓰기에 동참하고 있다.

물 아끼기

우리나라도 이젠 물 부족 국가군에 들어간다. 화장실 사용에 들어가는 물을 줄이기 위해 빨래 헹군 물이나 세숫물을 모았다 쓰는 것은 필수. 빨래감을 모아서 세탁하는 것을 통해 세탁기를 무심코 사용하는 데에 들어가는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물을 아끼기로 유명해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간다는 물 짠돌이 전병임 보살(정토회 마산법당). 전 보살은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했다고 집안이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데 아까운 물을 그냥 버리는 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세탁기 사용을 월 2~3회로 줄이고 손빨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물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비법을 밝혔다.

화장실 쓰레기 없애기

화장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토회는 인도식 뒷물하기를 실천하고 있다. 뒷물 시설을 갖춘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위생적이기에 쓰레기를 줄이면서 질병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좀처럼 썩지 않는다는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를 면기저귀나 면생리대로 바꾸는 것도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글=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남긴음식 年 15조, 처리비 8조원
정토회, 실천단구성 범시민 운동

"불교적 삶의 방식 일상생활에 접목"

박석동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불교환경운동의 목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쓰레기제로 1080운동'은 불교적 인생관, 삶의 방식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박석동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쓰레기제로 운동'을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시킨다면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물자절약에도 크게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한다. 즉 전통발우 공양식 식사, 일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발생량 체크 등은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조금만 습관을 들이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박 국장은 "4월 개원한 땅살림생태교육장을 통해 발생된 쓰레기를 퇴비로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쓰레기 제로화 방법들을 계속 연구,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